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재희
석천학당 원장

코로나에 걸려 미각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무지 살맛이 안 난다고 한다. 냄새도 못 맡고, 맛도 모르니 사는 맛이 안 난다는 것이다. 음식의 맛을 못 느끼는 병을 미각 장애 또는 미맹(味盲)이라고 한다. 맛에 감각(盲)하다는 것이다. 맛을 못 느끼는 병을 미맹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맛을 못 느끼는 병을 생맹(生盲)이라 불러도 될 듯하다. 삶(生)의 맛에 감각하다는 의미다. 어느 날 갑자기 살맛이 안 나고, 재미있는 일도 없고, 사는 게 의미가 없다고 자주 말하고 있는 나를 만난다면 심각하게 치료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중용(中庸)은 균형 잡힌 인생을 사는 법을 설명하

인생의 맛

고 있는 고전이다. 균형 잡힌 인생의 극치는 인생의 맛(味)을 알고(知) 사는 것이다. 사는 재미(在味)와 의미(意味)를 음미(吟味)하며 사는 인생이 맛있는 인생이다. ‘중용’에서는 맛을 잃어버린 사람의 병리 상태를 ‘지미(知味)의 센서에 이상이 생겼다고 정의한다. ‘사람들은 모두 음식을 먹지만 (人莫不飲食也, 인막불음식야), 제대로 맛을 알고(知味) 먹는 사람이 드물다(鮮能知味也, 선능지미야).’ 사람들이 자기중심을 잃고 불균형과 편향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태에 대하여 공자는 맛을 모르는 병에 걸렸다고 정의하고 있다.

음식을 먹으면서 맛을 모르고 먹는 것이나, 인생을 살면서 삶의 맛을 음미하지 못하며 사는 것이나, 같은 병이라는 것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항상 넘쳐서 맛을 모르고,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모자라서 맛을 모른다. 성공한 사람은 교만해서 맛을 모르고, 실패한 사람은 우울해서 모른다. 인생의 맛을 알고 산다는 것은 학력과 성공 여부와 상관이 없는 일이다. 감정의 불균형(中和), 자기 불신(信疑), 현실적 판단의 부재(時中), 현실의 부정(自辱), 지속성의 결여(能久), 선택의 부적절(擇善) 등 다양한 문제들이 맛을 못 느끼며 사는 인생의 원인이라고 ‘중용’에서는 열거하고 있다.

인생의 맛을 음미하지 못하는 생맹은 돈과 지위와 상관없이 나타난다. 지식을 좋은 대학 보내는 일에 인생을 걸었던 부모가 막상 목욕을 이루고 나면 허탈하게 걸리기도 한다. 그토록 원하던 성공은 이루어졌는데 막상 돌아서 보면 재미와 의미 없이 살아 온 인생이 후회되

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 목표만 이루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그곳에 이르렀다고 모두가 행복하지는 않다. 우울함의 근원은 결국 맛을 모르고 살았던 나의 삶에서 시작된 것이고, 소진된 인생의 에너지는 의미 없이 목표를 향해 뛰어온 결과다. 그때 비록 작지만 소중했던 시간에 재미와 의미를 느끼지 못한 결과가 재미(知味)의 기능을 고장 나게 한 것이다. 하늘은 인간을 이 세상에 살게 함에 재미와 의미를 모두 느끼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었지만 모든 인간이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이다.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음식을 먹지 않고, 음식의 맛을 느끼며 배를 채운다면 한 수 위다. 성공하기 위하여 인생을 사는 것보다, 인생의 재미와 의미를 느끼며 목표를 달성한다면 높은 수준의 성공이다. 재미없는 일과 의미 없는 인생으로 하나뿐인 삶을 낭비하지 말자. 고장 난 지미(知味) 센서를 복구하여 맛있는 인생을 사는 나를 만나자. 하늘(天)은 나에게 맛있게 살라는 명(命)을 내려 이 땅에 보냈으니가. 그 천명을 잊지 말고 한 해를 살아 보자.

종교칼럼

사랑은 김치 같은 것



중현
광주 중심사 주지

김치의 주된 식재료는 배추지만, 배추 먹는 맛으로 김치를 먹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김치는 배추를 제외한 여러 가지 부재료와 다양한 양념 그리고 발효와 숙성 등이 어우러져 탄생되는 요리이다. 주 재료인 배추 본연의 맛을 살린 요리가 아니다 보니 정작 배추 없는 총각김치나 열무김치도 등장한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사랑이라는 요리의 주 재료는 사람이다. 사랑은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에서 탄생되는 매우 복합적인 감정이다. 김치처럼 사랑 역시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담백한 요리가 아니다.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요리가 풍기는 강렬한 맛에 취하여, 어떤 식재료와 양념이 들어가는지, 레시피는 어떤지 찬찬히 살펴볼지 못한다. 많은 사랑이 오래 이어지지 못하는 주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랑은 소통과 공감에 기반하고 있다. 이 사실을 망각한다면 사랑이 만들어내는 여러 감정과 사랑이 촉발시키는 욕망들이 마음을 뺏기기 쉽다. 그 결과, 주재료인 사람은 사라지고 감정과 욕망만 남아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거나 아니면 받으려고만 하는 사랑도 흔히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병든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요리의 맛은 어떨까? 지역마다 집마다 김치의 맛이 다르지만, 김치 특유의 맛은 고춧가루를 기본적인 베이스로 하는 매운 맛이다. 매운 맛이 김치의 특징이기는 하나 김치에 매운 맛만 있는 건 아닐 뿐더러, 고춧가루만큼은 김치 특유의 매운 맛을 낼 수도 없다. 배추와 고춧가루가 없다면 김치라고 할 수 없지만, 배추와 고춧가루만 있다고 해서 무척대고 김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배추와 고춧가루가 다른 여러 가지 양념들과 잘 어우러져야 김치 본연의 맛이 난다.

사랑도 마찬가지이다. ‘사랑’이라는 요리의 맛 역시 사람마다 다르다. 하지만 김치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맛이 있듯, 사랑이라는 요리를 대표하는 맛은 ‘집착’이다. 순수한 사랑을 굳이 말로 하지하면 무수상보시(無住相布施), 그러니까 조건 없는 자비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그 맛이 너무나 맛있기 때문에 즐거움·행복·애틀함·쓰라림 같은 감정들이 추가되고, 소유욕이나 권력욕 같은 강렬한 욕망이 부지불식간에 스며든다. 이렇게 해서 사랑 특유의 맛이 탄생한다. 그러니까 집착은 집착이되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여러 감정과 욕망이 한데 어우러지며 몇 단계 업그레이드된 집착이 바로 사랑인 것이다. 그래서 ‘사랑 본연의 집착’이라고 말하지 않고, 업그레이드된 집착 그 자체를 사랑이라고 부른다.

한편, 배추가 김치로 탈바꿈하려면 가장 중요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배추에 고춧가루만 묻혀서는 결코 김치가 될 수 없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치라는 요리는 여러 가지 식재

료, 다양한 양념, 정교한 레시피 그리고 무엇보다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김치가 탄생된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사랑 역시 상대에 대한 관심, 호기심 등은 성숙한 있다고 사랑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그 후속도 허투루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다. 성적 욕망, 관심, 호기심 같은 심리가 사랑으로 발전하려면 서로에 대한 충분한 친밀감이 형성되어야 한다.

친밀감은 본능적인 거부감이 작동하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 안에 타인이 들어와도 불편하지 않은 감정이다. 그래서 친밀감은 거의 항상 시간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이 영역은 지극히 사적인 공간으로 이 영역 안에 존재하는 것은 내만의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 까닭에 친밀감은 자연스럽게 소유욕으로 변질된다. 친밀감은 흔히 정(情)이라고도 하는데, 정이 깊어지면 집착이 되기 마련이다. 사랑이 매우 복합적인 집착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어쨌든 사랑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매우 힘들다. 자칫 잘못하면 사랑에 스며들어 있는 복합적이고 모호하고 미묘한 부분들을 놓치기 십상이다. 그러나 비유를 들어 사랑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사랑의 이런 특징을 알고 있다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사랑 때문에 가슴 아파할 일은 덜 할 것이다.

목은지는 아주 오랜 시간 숙성되어서 더 이상 양념이나 부재료가 필요 없다. 많고도 다양한 양념과 부재료들은 그저 흔적으로만 목은지 속에 스며들어 있다. 오로지 삭을 대로 삭은 배추만으로 깊은 맛을 낸다. 김치든 사랑이든 깊은 맛은 세월이 만드는 법이다. 사랑을 하려면 목은지 같은 사랑을 하기 바란다.

기고

교육 자치 분권과 교육지원청의 역할



임채석
광주시교육청 사무관·행정학박사

지방 교육 자치가 올해로 32년을 맞는다. 지방 교육 자치제의 법적 근거는 1991년 3월 제정된 교육자치법에서 찾을 수 있다. 교육 자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2007년 교육감 주민직선제 도입, 2010년 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전환 등의 변화와 발전을 겪었다. 시도교육청의 교육 자치 분권 역량은 해가 거듭되면서 축적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되면서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의 통합·분리 주장이 첨예하게 표출되고 있다.

교육 분권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조직·인사·재정 자치권에 있어 중앙정부 의존이 높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교육제도 운영의 권한 배분에 관심이 크다. 보통 교육부가 법령에 규정된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 또는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교육 분권으로 이해한다.

현행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은 개별 법령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법률의 제·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 분권은 교육부, 교육청, 학교로 이어지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교육 체제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 운영을 전제로 한다.

교육 분권의 핵심은 ‘권한 이양’이다. 정부는 2017년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 1·2단계에 따라 유초중등 교육 관련 배분을 추진했다. 또한 우선 과제를 선정하고 법령 정비 등 중장기 이행 과제를 발굴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 왔다.

교육자치 강화는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권한의 합리적 배분이다. 하지만 배분 방식이 교육청이나 단위 학교 현장 요구가 아니라 국가 주도의 로드맵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지적하고, 교육부는 교육청이 아직 받을 준비가 될 땐다고 하고, 교육청은 권한 이양을 한다고 해 놓고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고 반문한다. 이처럼 권한을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이해관계나 체감 정도가 각각 다르다.

교육 행정기관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176개 교육지원청이다.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분장을 위해 1~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구역을 하급 교육 행정기관으로 교육지원청을 두고 있

다. 현 교육지원청의 기능과 조직은 2008년 정부의 지방 교육자치 내실화와 학교 자율화 강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갖춰졌다. 2010년 9월 종래 지역 교육청에서 개편된 것으로 지방 교육 행정기관의 기능을 학교에 대한 ‘규제와 감독’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환했다. 12년이 지난 현재의 교육지원청 모습은 어떤가? 교육지원청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지난해 6·1 지방 교육감 선거 이후 시도교육청마다 조직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지원청 재구조화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있었지만 교육 현장의 불만은 여전하다. 본청은 집행 기능보다는 기획 기능 강화로, 교육지원청은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듯하다. 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터미널 기능과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자치와 분권은 시대의 흐름이다. 교육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권한 이양 속도를 높여야 한다. 변화하는 교육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교육지원청 역할도 변해야 한다.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는 홀로 설 수 없다.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의 연계와 협력은 필수적이다. 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해야 한다. 교육 자치는 학교 자치다. 단위 학교의 자율적이고 민주적 운영이 결국 교육 자치의 핵심이다.

社說

중대재해법 1년…광주·전남 48명 퇴근 못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꼭 1년을 맞았지만 광주·전남 지역 산업 현장에선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중대재해로만 48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한 데다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1건 가운데 현재까지 기소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전국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는 256명으로 전년에 비해 여덟 명이나 늘었다. 광주·전남에서는 40건의 사고로 48명의 노동자들이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이와 관련 광주지방법고용노동청은 지역 중대재해법 적용 1호 사건인 여천NCC 폭발 사고와 관련 대표 최 모 씨와 김 모 씨를 사고 발생 1년여 만인 그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여천NCC에서 열교환기 청소 작업 도중 설비가 폭발해 네 명이 숨지고 네

명이 다치는 사고 당시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데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1건 중 광주·전남에서 기소된 건은 한 건도 없었다.

이처럼 수사와 기소가 늦어지면서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 시행으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안전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법의 모호성과 불명확성 탓이 크다.

따라서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안전 규정 강화 등을 통해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아울러 모호한 처벌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스포츠 정신 훼손하는 ‘경기 출전 금지’ 계약

광주 A1페퍼스와 GS칼텍스 여자프로 배구단이 국가 대표 출신 리베로 오지영의 이적 과정에서 ‘전 소속 팀 상대 경기 출전 불가’ 조항을 넣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선수 권리는 물론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도.

두 구단이 트레이드를 단행한 건 지난달 26일이다. 당시 개막 후 16연패에 빠졌던 페퍼저축은행은 2024-2025시즌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넘겨주고 GS칼텍스에서 뛰던 베테랑 리베로 오지영을 영입했다. 하지만 오지영은 트레이드 후 첫 양 팀의 첫 맞대결이었던 지난 23일 GS칼텍스와 홈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페퍼스 구단은 오지영을 투입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트레이드 과정에서 양 구단이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GS칼텍스가 “즉시 전역인 오지영을 이같이 내주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오지영을 올 시즌 남은 GS칼텍스전에 투입하

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요청했고, 페퍼스가 이에 응했다는 것이다. 오지영은 양 팀 간 합의에 따라 올 시즌 남은 두 차례 GS칼텍스전에도 나설 수 없다. 결국 구단의 사적 계약에 따라 세 경기 출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자유계약선수(F.A.) 자격 취득, 개인 기록 타이틀 경쟁 등 선수로서 기본 권리까지 침해당하고 있는 셈이다.

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수의 출전 기회를 박탈하는 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야 하는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고 팬들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행위다. “두 구단이 승부 조작이나 다름없는 행위를 했다”고 팬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과거 국내의 축구계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출전 금지’ 조항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양 구단과 한국배구연맹(KOVO)은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불공정한 관행을 깨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추신수의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 팀 선발에 대한 소신 발언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키움 투수 안우진의 탈락에 대한 지적이 한국 사회에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인 학교 폭력(학폭)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안우진은 고교 시절 저지른 학폭으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국가 대표 선발 자격이 박탈됐다. 올림피아나 아시안게임 등에 참여할 수 없는 신분이 된 것이다. 그러나 프로단체가 주관하는 WBC는 이에 대한 제한이 없어 이번 논란이 불거졌다.

추신수는 “한국은 용서하기 쉬운 것 같다”며 안우진이 어릴 때 잘못을 저질렀지만 징계를 받았는데 WBC 대표팀에 선발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런 처사에 선배들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정서까지 언급하며 선을 넘은 그의 발언은 야구뿐만 아니라 축구 배구 농구 등 체육계에 만연했던 학폭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용서가 쉽지 않은 이유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서다.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면 피해자도 용서할 마음이

생기겠지만 가해자는 발 뺀고 자고 피해자는 ‘지옥’에 사는 게 현실이다.

추신수의 발언에서 더욱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실력만 있으면 인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국가 대표에 뽑혀야 하고, 국가 대항전은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자리라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는 광주 흥농 출신 한화 문동주를 언급하면서 “그런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얼굴을 비추고, 외국에 나갈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한국 야구가 할 일”이라고 했다. 또한 김현수와 김광현, 양현종이 뽑힌 것에 대해 당장의 성적보다 미래를 봐야 한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한국은 지난 WBC 두 대회에서 모두 1회전 탈락의 수모를 겪었고, 3월 10일 한일전을 앞두고 있다. 추신수의 논리를 추구에 적용하면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들을 선발할 때 젊은 선수들의 유럽 리그 진출을 돕기 위해 실력 좋은 베테랑 선수들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동의하기 어렵다. 국가 대표의 기대에 부응해 실력을 증명하는 자리가자이기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서다.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면 피해자도 용서할 마음이

추신수의 ‘설화’

현수와 김광현, 양현종이 뽑힌 것에 대해 당장의 성적보다 미래를 봐야 한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한국은 지난 WBC 두 대회에서 모두 1회전 탈락의 수모를 겪었고, 3월 10일 한일전을 앞두고 있다. 추신수의 논리를 추구에 적용하면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들을 선발할 때 젊은 선수들의 유럽 리그 진출을 돕기 위해 실력 좋은 베테랑 선수들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동의하기 어렵다. 국가 대표의 기대에 부응해 실력을 증명하는 자리가자이기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서다.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면 피해자도 용서할 마음이

현수와 김광현, 양현종이 뽑힌 것에 대해 당장의 성적보다 미래를 봐야 한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한국은 지난 WBC 두 대회에서 모두 1회전 탈락의 수모를 겪었고, 3월 10일 한일전을 앞두고 있다. 추신수의 논리를 추구에 적용하면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들을 선발할 때 젊은 선수들의 유럽 리그 진출을 돕기 위해 실력 좋은 베테랑 선수들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동의하기 어렵다. 국가 대표의 기대에 부응해 실력을 증명하는 자리가자이기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서다.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면 피해자도 용서할 마음이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權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